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Model of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정 동 열(Dong-Youl Jeong)**

목 차

- | | |
|-----------------------------------|------------------------|
| 1. 서론 | 4. 1. 2 주제전문화 형태 |
| 2.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현황
및 문제점 | 4. 1. 3 주제전문화 고려 요소 |
| 3. 대학도서관 기능상의 변화 | 4. 2 주제전문 사서 양성 |
| 3. 1 지식정보의 수집 | 4. 2. 1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 |
| 3. 2 정보의 처리와 저장 | 4. 2. 2 주제전문 사서 양성 방안 |
| 3. 3 지식정보의 생산 | 4. 3 맞춤형 주제정보제공 기능 강화 |
| 3. 4 이용자 정보제공 | 4. 3. 1 주제별 정보제공 기반 구축 |
| 4. 대학도서관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 | 4. 3. 2 이용자 교육 강화 |
| 4. 1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 4. 4 학술정보 주제 게이트웨이 구축 |
| 4. 1. 1 주제전문화 방향 | 4. 5 학술정보 공동이용 체제 구축 |
|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지식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주제전문화의 역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전문화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능상의 변화와 주제전문화를 위한 역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방향, 형태 및 고려 요소,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과 양성 방안, 맞춤형 주제정보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이용자 교육 강화, 학술정보 주제 게이트웨이 구축을 통한 주제전문화 효과 제고, 그리고 학술정보 공동이용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한다.

ABSTRACTS

With the rapid change of information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role models and strategies for the university library in Korea based on the subject specializ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university library, this research presents various directions for the subject specialization. Major research issues are (1) university library's subject specialization directions, models, and factors, (2)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role and education system, (3) basic framework for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 and user education, (4) enhancement of subject specialization through subject gateway, (5) academic information sharing system.

키워드: 주제전문화, 주제별 조직, 대학도서관 역할, 주제전문 사서, 맞춤형 주제정보

* 이 논문은 200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dyjeo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9월 12일

1. 서론

20세기 후반이후 지적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 처리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통적인 산업사회 체제에서 지식기반사회 체제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지식을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제 현상으로 인하여 지식과 정보가 모든 활동의 근본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인간생활은 지식정보의 생산, 저장, 처리, 유통 및 이용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개인이나 조직은 외적 정보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적어지게 마련이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는 개인은 물론 도서관과 같은 조직이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존속 및 발전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지식정보 환경의 변화가 대학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년 내에 학술분야 지식정보의 반 이상이 전자형태로 변환될 것이고, 대학도서관 이용자 대부분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지식정보에 접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통신망과 전자정보의 지속적인 발달이 지식정보 이용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적합한 지식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교육·연구 및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정보제공 업무에 있어 현재보다 체계적인 정보의 선택, 정리 및 분석과 저장, 이용과정이 요구된다.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지식정보 관리업무 내용이 가장 급속하게 변화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 고유의 역

할은 변할 수 없지만, 대학도서관 외적인 지식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봉사에 대한 그 방법과 기법은 변할 수밖에 없다.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시대의 대학도서관 발전 방향은 그 대학의 연구 및 교육목표와 대학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다소 변화의 양상은 다르게 마련이다. 정보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상의 변화와 구조상의 변화를 통하여 새지식정보 제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적 정보공간의 출현은 대학도서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3차원 공간에 방대한 지식정보를 축적, 유통, 이용할 수 있는 체제이다. 특히 최근에 대학도서관 환경이 이용자의 정보요구 세분화 및 구체화, 정보매체의 다양화, 정보접근 채널 및 제공방법의 다기화, 정보검색 및 원문입수용 정보기술의 난해성,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공간의 등장에 따른 봉사범위의 확장성 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는 이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십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보제공 형태이다. 전문적인 학술정보를 다루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는 특정한 분야의 주제

를 가지고 도서관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제전문화는 이용자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기능을 극대화하며, 관련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이면서 분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학도서관이 정보환경의 급속한 소용돌이 속에서 정보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서관 조직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 대학의 정보화와 지식화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 및 전략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현황 및 문제점

대학도서관 주제전문화(subject specialization)의 기본 조건은 조직 유형에 근거한다. 최근까지도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 중에서 완전한 주제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학도서관의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주제별 조직, 기능별 조직 그리고 자료 형태별 조직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은자, 이해영 2001; 이소정 2001). 대학도서관에서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제별 조직

에 근거하여 주제별 담당사서가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자료에 대하여 수서, 정리 및 참고봉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인력문제, 공간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주제별 조직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은 자료열람실을 3개의 주제관(제1관 : 종교·철학·총류관, 제2관 : 이공·인문관, 제3관 : 사회과학관)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주제별 조직의 형태를 중심으로 수서실과 정리실의 기능별 조직, 정기간행물실의 자료형태별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정재영 2000). 서울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을 기능별 및 자료형태별 조직으로 유지하면서, 경영, 법학, 사회과학, 농학, 의학, 치의학 등 6개의 주제 분관으로 주제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별 분관의 경우 주로 의학, 법학, 음악, 농학, 공학, 경영 등 타 분야와 구분될 수 있는 주제상의 특성으로 나누거나, 단과대학과 중앙도서관과의 거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분관 형태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도서관은 기능별 조직은 유지하면서 참고봉사의 형태만 확대된 형태 즉, 기능적 구조를 기본 틀로 하면서 이용자봉사의 측면만 확대·강화시킨 구조로 볼 수 있다. 주로 미국의 대규모 종합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직 형태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주제형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문과학정보팀, 사회과학정보팀, 자연과학·예체능정보팀 등 3개의 주제정보 팀으로 구분하여 모든 자료와 직원

및 업무내용도 주제별 조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구조상의 주제별 조직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주제전문 사서의 배치이다. 주제별 조직에 사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배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주제전문 사서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대체로 문헌정보학 전공과 타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에서는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타 대학도서관에 비하여 주제별 조직을 앞서서 시작한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3개의 주제자료실 모두에 주제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정도이다. 주제전문 사서의 배치가 미흡은 이유는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담당영역이 너무 넓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주제전문 사서의 양성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 주제별 조직 담당사서의 배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과 대학도서관의 여건상 주제배경이 있는 사서를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사서의 인성이나 적성을 고려하면서 충분한 사전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주제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사서는 해당 주제 자료에 대한 서지적 지식을 포함하여 그 주제분야의 연구동향이나 학문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심도있고 포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 주제별 조직의 운영상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다. 주제별 조직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학도서

관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방법, 자료실별로 예산을 책정, 배분, 집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의 혼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대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도서관에서 통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 경우 주제별 자료실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기준은 해당 주제별 자료실과 관련된 학과수, 교수와 학생수, 희망도서 신청건수, 실제 대출실적 등에 근거하고 있다.

주제별 조직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 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중앙도서관과 주제별 조직간의 자료의 중복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중앙도서관에 자료가 소장되어 있거나, 한 주제별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으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 학제간의 학문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각 주제별 자료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소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예산 증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해당 대학도서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주제별 조직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제별 정보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귀결된다. 전문인력인 주제전문 사서의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주제별 정보서비스에서 전문사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요청된다. 따라서 주제별 조직이 이용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지만 대학도서관에서의 업무 증가, 예산지출의 증가, 이용자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학도서관 기능상의 변화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시대의 대학도서관 발전 방향은 그 대학의 연구 및 교육목표와 대학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다소 변화의 양상은 다르게 마련이다. 정보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기능상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대학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 기능인 지식정보의 수집, 처리와 저장, 생산, 이용자 정보제공 과정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시대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검토되어야 한다(정동열 2000).

3. 1 지식정보의 수집

대학도서관에서 지식정보의 수집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 자료의 선정과 입수를 말한다. 최근까지 자료선정의 도구로 주로 이용되어 왔던 출판사나 대리점 등이 발행하는 목록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제반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정보자료 수집활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

자업무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단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로 결재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자업무체제가 실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PC통신이나 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대형서점이나 서적상과 상당한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보다 행정상의 처리 과정이 아직도 복잡하고 시간적 소모가 많아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차적으로 전자출판의 보급, 전문DB의 확대, 네트워크의 확충 등으로 그 가능성은 무한한 것으로 예측된다.

3. 2 정보의 처리와 저장

대학도서관에 수집된 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업무로는 분류와 목록작업이 거의 전부이다. 분류와 목록은 자관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분류표에 의거하여 수작업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목록은 기계가독형목록(MARC) 형태로 입력되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복사목록(copy cataloging)를 활용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전자매체가 중심이 될 대학도서관의 정보자료는 지금과 같은 분류와 목록작업에 상당한 변화가 예측된다.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내용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의 개발로 분류코드를 자동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록업무는 정보자료의 전자매체화로 주컴퓨터 속에 내장됨에

따라 대학도서관 서가에 배열될 필요가 없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처리된 정보자료는 색인과정을 통하여 상호관련이 있는 정보집합체로 그룹화하여 링크가 가능하도록 저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관리는 기존의 저장기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래의 정보, 즉 원자료를 저장할 자료저장 데이터베이스와 자료의 색인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색인어 저장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원자료에 대한 저장시스템은 이미 기존의 상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이미지나 동화상 자료의 저장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지 정보를 전자화할 경우 많은 정보량이 발생하게 되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나, 최근의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3. 3 지식정보의 생산

아직까지 대학도서관에서 지식정보 생산 활동은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가공 또는 편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지나 목록 등 단편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지식정보 생산 활동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에서의 지식정보 생산 활동은 지금과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매체로 구성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를 구축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조사(The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s List 2000)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자학술저널 3,400여 종 가운데 1,500여 종이 더 이상 인쇄형태의 발간을 중단하고, 전자매체로 웹 상에 띄우거나 CD-ROM 형태로 배포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전자저널로 분석된다. 이런 환경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문학술저널 관리는 지식베이스의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다.

전자정보의 생산 혹은 생성은 텍스트 등의 정지화상이나 비디오, 오디오 및 컴퓨터 파일과 같은 3차원 정보의 전자화 및 조직화가 출발점이다. 전자화 방법은 전자자료의 직접적인 생산이나, 비디지털 데이터의 전자복제로 가능하다. 전자복제는 스캐너나 문헌이미지처리기(Document Image Processor)를 활용하거나 워드프로세스로 키인하는 방법, 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또는 LAN을 통한 송수신 등으로 가능하며 이들은 상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로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 4 이용자 정보제공

전형적인 대학도서관 정보제공의 기본 모형은 사서 혹은 정보전문가가 정보자료와 이용자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형태는 이용자의 시간적, 공간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간접적 정보검색체제로 볼 수 있다.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정보제공은 정보전문가를 통한 정보봉사보다는 이용자가 직접 정보검색을 행하

는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즉 최종이용자가 전자정보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전자정보제공에서는 내용이나 형태 및 출처가 다양한 정보원에서 디지털화된 텍스트 및 비디오나 오디오 등의 이미지 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능형 정보검색시스템의 구축으로 고도의 검색기법, 다양한 검색방법, 자연어 처리를 위한 색인과 시소러스, 적합문헌의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등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이용자는 정보매개자의 도움없이 직접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4. 대학도서관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

대학도서관에서 이상적인 주제전문화의 역할 방향은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위로 학문을 구분한 다음, 각 구분된 주제자료실이나 주제 분관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배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주제전문 사서 혹은 주제정보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다. 곧, 주제전문화의 기본적인 3대 방향은 대학도서관의 조직, 주제전문 사서, 효율적인 정보제공 체제 개발로 귀결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대학도서관 정보제공의 새로운 역할 방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학술정보 주제 게이트웨이의 구축과 학술정보 공동 이용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할 수 있다.

4. 1 대학도서관 주제전문화 방향

4. 1. 1 주제전문화 방향

지식정보 생산량의 급증과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가상적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방대한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제시되어야 하겠다.

대학도서관 고유의 역할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학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는 소장자료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심층적이며 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서비스 지향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성격이나 역할의 변화에 따라, 각 대학도서관은 이전의 기능별 조직구조의 형태에서 새로운 조직구조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구조 변화의 가장 큰 목표는 이용자들의 현시적인 정보요구는 물론 잠재적 정보요구까지를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정동열 1997). 또, 자료조직 과정보다는 그 결과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에 치중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이용자 요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1. 2 주제전문화 형태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이용자 정보제공 측면보다는 도서관측의 정보 자료 관리나 편의적인 측면에 우선하여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부서화도 자료유형별이나 기능별로 구분되어 왔다. 이는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특정주제의 정보자료가 분산 비치되어 이용자나 사서의 시간적 낭비는 물론 효과적인 정보자료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오선경 2002).

따라서 주제전문화는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위로 학문을 구분한 다음 각 구분된 전문주제관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배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주제전문 사서 혹은 주제정보 전문가를 확보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다. 가장 이상적인 주제전문화는 각 전공별로 분리하여 도서관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완전주제형'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이러한 주제전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명문 종합대학의 경우 대체로 인문과학주제관, 사회과학주제관, 자연과학주제관, 공학주제관, 의학주제관, 법률주제관, 농학주제관, 예술주제관 등 단과대학이나 대주제별로 구분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대학의 특성에 따라 특정 주제분야를 더욱 세분하여 특성화된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수십 개의 전공별 해당 대학 건물 내에 자체 도서관을 두어 '분관형'으로 주제전문화를 실시하는 대학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역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형태는 기존의 기능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고정보제공의 기능만을 강조

하여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혹은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담당사서가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혼합형' 혹은 '과도기형'으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주제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주제 구분을 보면, 총류, 종교·철학, 인문과학, 어문학, 동양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과학기술, 예·체능, 예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전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은 전체 자료를 평가하여 각 대학이나 전공의 특성에 적합하게 중앙도서관에 한정된 주제자료실을 운영하는 전략이다. 물론 대학도서관에서 선정된 주제자료실별로 주제의 영역과 자료의 배치, 인적자원의 구조, 예산의 배정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근거로 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도서관간의 도서관 상호대차나 정보자료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는 일체의 대학도서관 자료를 주제로 구분하고 사서도 주제관으로 배치하여 각 주제관에서 모든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완전주제형'도 소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다(정재영 2000). 대학도서관의 모든 자료가 주제별로 구분되는 관계로 종래의 기능별 조직보다는 다소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세분화된 분관조직보다는 경제적이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만족도와 효율성이 증대하게 된다. 완전주제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의 모든 자료가 주제별로 통합되어 자료 이용에 있어 효율적이며, 특정 주제분야의

통합된 목록과 서지봉사 등 전문적인 정보서비스의 가능하다. 또한 주제전문 사서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서가 주제전문 사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구비될 수 있으며, 일반직원이 주제전문 사서의 일상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보다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전담할 수 있으며, 세분된 주제별 분관보다는 자료구입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점이다.

세 번째 형태는 중앙도서관은 기존의 체제로 유지하면서 의학도서관, 법률도서관, 음악도서관, 공학도서관 등 별도의 전문주제관인 '분관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는 개별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구분, 건물 공간, 사서 인력, 정보제공 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제별 분관을 위해서는 다수의 도서관 건물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제별 조직과 분관조직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지만, 비경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경우 주제별 분관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은 학문의 세분화에 따라 이용자들이 주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 있다. 즉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정보제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제적인 연구의 경향에 따라 복수의 주제분관 설치 등도 고려되고 있다.

4. 1. 3 주제전문화 고려 요소

대학도서관을 주제별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내외적으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대학도서관 업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체제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주제별 조직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도서관 장서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특정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나, 특수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제 자료실의 소장 자료의 형태와 중복구입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각 주제 자료실마다 기본 참고도서나 연속간행물의 중복 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재의 도서관 건물은 종합적인 계획하에 세워진 것이 아니므로 효율적인 공간 배치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직원 조직의 개편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다(이소정 2001, Hay 1999).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자료의 주제별 배치에 대한 연구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주제전문화는 이용자의 정보이용 만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자료의 질적 향상 및 주제전문 사서의 자질 배양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4. 2 주제전문 사서 양성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서 주제별 조직을 담당할 전문지식을 갖춘 주제전문 사서의 부족과 주제전문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미흡이 지적되었다. 그간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주제전문화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인 주제전문 사서의 양성을 위하여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과 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4. 2. 1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

주제전문 사서(subject specialized librarian)의 역할은 이미 외국의 대학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수십년 전부터 주제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특정 주제분야에 대하여 단순한 정보수집과 정리 차원을 넘어 관련 주제분야의 처리와 검색은 물론 분석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지적기능이 요구되는 인력을 말한다. 특히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전자정보에 대한 추적과 개발을 위해서는 주제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지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즉, 주제전문 사서는 담당 주제분야의 학문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보자료의 선정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서지적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요구, 정보자료의 유통 현황, 인력과 예산, 주제분야의 내외적 변화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제전문 사서는 담당 주제분야에 대하여 학사 학위 이상 주제배경을 갖

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물론 학위 취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제배경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주제전문 사서가 해당 주제분야의 학문적 지식(academic knowledge)에 의존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정보속성(information property)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이 해당 주제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정보자료에 대한 주제적 특성이나 이해를 통하여 이용자의 주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독해력(ability of information understanding)에 있음을 의미한다.

4. 2. 2 주제전문 사서 양성 방안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제전문 사서의 양성이 가장 급선무이다. 전술하였듯이 주제전문 사서로 가장 적합한 대상은 주제지식과 문헌정보학 지식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문헌정보학 교육이 학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제전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제지식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사서의 직급 체계가 주제 배경이 아닌 전공과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주제전문 사서의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으며, 사서직의 절대적인 인원도 대학도서관 평균 6.56명에 불과하다(표 1 참조). 이는 곧 학교교육과 직업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이 뚜렷함을 보이고 있다.

〈표 1〉 2000년 대학도서관 사서직원 현황

	국공립	사립	전문	각종	계
도서관수	63	179	160	18	420
1급 정사서	129	210	21	1	361
2급 정사서	464	1,208	238	10	1,922
준사서	152	230	89	3	474
계(사서)	745	1,648	348	14	2,75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통계연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서 양성 교육체계를 근거로 하여 주제전문 사서 양성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과정의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문헌정보학 외의 주제를 보완하여 초급 주제 담당사서를 양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서양성 제도로서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다른 주제분야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하는 경우와 타 전공자가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 하는 경우이다. 최근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학부제를 채택함에 따라 복수전공과 부전공이 활성화되고 있어 초급사서의 양성에 긍정적인 면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초급 주제전문 사서를 주제전문화 상태의 주제전문 사서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학부에서 타 주제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경우는 주제 배경을 가지고 문헌정보학에 접근하는 경우로 미국의 사서양성 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다. 실제로 컴퓨터 관련 분야나 경영학, 법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학부 전공자가 문헌정보학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도서관 현장에서의 선호도는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의 타 전공자가 문헌정보학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와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주제전문 사서에 대한 인식제고와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문헌정보학과(전공)에서 동일하게 학부과정을 설치하는 것보다 특정 소수의 대학에서 단설대학원으로 문헌정보학 대학원을 설치하여 학부의 타 전공자들을 주제전문 사서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다른 주제분야를 전공하는 것도 이상적인 주제전문 사서의 양성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의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다른 주제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진학하더라도 주제전문 사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로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제전문 사서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일반 사서들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일부러 주제분야 대학원을 이수할 동기 자체가 빈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강미혜 1994).

넷째,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도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경우로 국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서 양성 교육

체계이다. 문헌정보학 전공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깊이있는 교육이 가능하나, 역시 주제전문 사서의 양성 과정으로는 거리가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주제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타 전공과목과 학점교류 등을 활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다섯째, 기존의 사서들에게 주제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특정 주제분야에 대하여 3~6개월 정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주제지식을 양성하는 방법이다. 즉, 사서 자격을 취득한 후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정보제공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운영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거나 일정기간 동안 도서관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분야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주제별 조직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사서를 전문적인 주제전문 사서로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 정기적으로 학술모임을 갖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주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각 도서관에서 축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주제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주제전문 사서가 한 단계 높은 주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3 맞춤형 주제정보제공 기능 강화

과거의 유능한 대학도서관 사서는 소속 도서관의 정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에서의 유능한 사서는 자관은 물론 세계적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정보원 관리 능력과 정보기술의 활용, 이용자에 대한 교육적 능력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이러한 대학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의 도서관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용자 개개인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과 평가가 가능하게됨에 따라 정보 활용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 스스로가 초보적인 정보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대학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은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전통적인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인 이용자 보조자, 안내자, 교육자에 부가하여,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해진 정보원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화된 주제정보를 제공하는 주제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일반 이용자에게 복잡하고 다양해진 정보원의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이용자 교육, 이용자 안내서 작성, 이용자의 기술적인 현장 문제 해결, 특정 시스템이나 새로운 시스템의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 대학도서관 사서가 Networked Librarian, Cybrarian, Electronic Information Intermediary 혹은 주

제전문 사서의 의미로 Economic Information Analyst, Law Information Specialist 등으로 명명되는 사례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보다 전문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변화로 해석된다. 곧 대학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 배경을 가진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제별 정보제공 기능 강화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안내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4. 3. 1 주제별 정보제공 기반 구축

대학도서관에서 주제별 정보제공을 위한 주제전문화의 선행조건은 주제별 정보자료의 확충 및 개발로 귀결된다. 주제별 조직의 주제전문 사서는 각 주제분야의 핵심장서(core collection)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개별 학문분야의 주요영역과 하부영역의 연구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대학내 이용자들의 정보수요 및 이용행태분석이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장서의 개발은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 등 계층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주제별 정보제공을 위한 핵심장서 분석방법으로는 주제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분석(syllabus analysis)을 통하여 교재 및 참고문헌을 파악하거나, 교과목 담당교수와 공동으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함으로써 핵심장서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학문분야 교수와 주기적인 의견교환이나 타 대학도서관 동일 학문분야의 주제전문 사서와 공동연구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 또한 국내외의 서평지 등 서지도구를 참조하거나 주요 학술지의 목차나 참고문헌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수들을 위한 핵심장서 개발은 주로 개별 교수들의 장서구입 요청에 의한 방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수시로 개별 교수가 추천도서나 참고도서를 대학도서관에 의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나 대학원생은 일반 단행본보다 학술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학술지에 대한 요구분석은 필수적이다.

핵심장서 개발과 동시에 해당 대학도서관의 특성과 성격 및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주제별 정보가이드나 서지 또는 색인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학과의 학부생들이 학년별로 참조하여야 할 문헌이나 교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공문헌 길잡이(road-map)를 작성하거나, 대학원생이나 교수처럼 깊이있는 주제정보 이용자를 위한 주제별 서지나 학술지 기사색인 등을 대학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전문 사서가 각 주제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제별 안내자료, 서지, 신간정보, 관련 학술정보망 등을 소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도서관에서 교수 개인별 관심 주제분야를 파악하여 연구에 필요한 학술지 목차복사 서비스는 선택적 정보제공(SDI)의 좋은 사례이다.

4. 3. 2 이용자 교육 강화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용교육은 초보적인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준에서 주제별 이용교육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주제에 따라 다양한 정보원의 이용방법과 안내를 통한 이용자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주제전문 사서가 다양한 이용자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인쇄정보와 전자정보에 대한 검색과 활용을 위해서는 주제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지니고 있는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정 주제분야에 대하여 주제전문 사서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순한 정보수집과 정리 차원을 넘어 관련 주제 주제분야의 처리와 검색은 물론 분석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지적기능이 요구되는 역할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주제전문 사서는 주제별, 자료형태별, 이용자별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개인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제확인 능력과 네트워크상의 광범위한 정보자원과 매체 및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므로써 가능하다. 즉, 주제전문 사서는 주제별 학습정보 검색법과 학과나 전공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정보상담자, 정보중개자 혹은 정보전략가의 역할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전문화가 이루어진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이용자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양한 주제정보자원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소개 등 이용자들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초보적 주제교육과, 이용자들 개개인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정보활동을 돕는 맞춤형 주제교육이다. 맞춤형 주제교육은 이용자 계층과 정보의 종류, 주제 등의 구분에 따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되어

야 효과적이다.

4. 4 학술정보 주제 게이트웨이 구축

1990년 중반이후 전자정보 검색환경과 전자출판물의 증가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소장정보와 원격정보의 접근기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미 외국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주제별 정보제공을 위한 주제 게이트웨이(subject gateway)를 구축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보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다. 주제 게이트웨이는 특정 주제분야의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 게이트웨이는 해당 주제분야의 모든 정보자원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집적(clustering)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쇄자료의 소장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신속한 브라우징으로 양질의 정보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정보활용 능력 확대는 물론 주제전문 사서의 참고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주제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경우 이용자 및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용자인 학생과 교수 측면에서는, 주제 게이트웨이가 다양한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인 통제를 거친 자원만을 수집해놓은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양질의 웹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그리고 이용자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정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와 배열이 주제 디렉터리로 구성되어 있어 주제의 대분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특정한 지식 없이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 검색엔진과 유사하지만, 주제 게이트웨이는 개별 웹정보원에 대해 주제분야, 자원유형, 초록 및 해제, 서지사항, 레코드 정보 등 풍부한 접근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단일 시스템,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인터넷상의 웹정보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제 게이트웨이는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학과 학술연구기관의 상호협력 하에 하나의 서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용자는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과 주제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대학도서관 측면의 효과로는, 주제 게이트웨이가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 정보제공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Campbell 2000). 주제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을 통한 참고정보 제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웹정보원을 선정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의 개발 및 응용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제 게이트웨이는 상업적인 사이트 외에 주로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에서 구축한 무료 웹정보원을 대상으로 하여 구축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도서관에게는 거대한 인터넷 장서를 무료로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무료 내지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5 학술정보 공동이용 체제 구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활성화 방향을 개별 대학도서관 차원을 넘어 지역적 또는 국가적 협력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주제전문화를 위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를 포함하는 주제정보의 개발이 가능한 시점이다. 대학도서관간의 기능과 역할 특성화에 기초하여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활용의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우선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근거로 살펴보면, 국내 대학도서관 연평균 자료구입비는 약 7억원 가량인데 이러한 예산 규모는 미국 대학도서관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외 학술정보와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세계 각국의 최신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학술지 구입 종수는 총 발행 학술지의 6%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이는 외국에서 연간 발행되는 해외 학술지 250,000여종 중에서 15,000여종이 구입되고 있다. 우리 나라 개별 대학도서관의 평균은 500여종에 불과하여 미국의 명문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표 2 참조).

〈표 2〉 국내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지 구독 실태

구 분	종수(종)
연간 발행되는 해외 학술지(Ulrich's Web, 2001)	250,000종
Harvard대 도서관	109,500종
Berkeley대 도서관	78,900종
미국 ARL 회원 대학 도서관 평균 구독 종수	15,300종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해외 학술지 총수	15,000종
서울대 도서관	1,600종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해외학술DB 이용 통계」, 2001.

그 동안 국내에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와 한국지역대학연합 도서관협력위원회 등에서 학술지 종합목록 발간 및 상호대차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표 3 참조). 정부에서는 최근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심으로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체제를 구축 중에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학술정보원에서 학술정보의 포털(portal)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정보의 목록 및 원문 제공과 해외 학술 DB 제공에 필요한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1960년대부터 OCLC 그리고 영국은 BLDSC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대학도서관이 갖는 제한적인 정보제공과 비용절감을 극복하여 학술정보제공에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주제전문화의 방향은 대학도서관간의 상호대차와 분담수서 체제의 구축이 최선

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상호대차는 일반 단행본을 중심으로 학술지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공유한다는 의미이며, 분담수서 체제는 지역별 또는 특정 주제분야별로 대학 상황에 따라 분담하여 수서함으로써 도서관의 특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학술 DB나 전문학술지의 경우 전국적인 단위 및 지역 단위로 협력체제(consortium)를 구축하여 정보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재정압박으로 인한 정보자료 개발의 애로점을 타개하고,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연구장서 및 핵심장서 구축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외국의 첨단학술정보는 웹 데이터베이스로 생산되어 개별 대학도서관에 공급되고 있다. 주요 핵심 웹 DB를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구매하는 관계로 국가 차원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수백억원의 외화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핵심 웹 DB를 국가 라이선스로 획득하여 각 대학도서관 등 첨단학술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연구력 강화는 물론 직접적인 외화절감이 가능하다.

〈표 3〉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현황

협 의 회 명	참여대학 (기관)수	창설 연도	주요활동내역
국립대학도서관 협의회	49	1979	- 종합대학교 22개, 교육대 16개 - 원문복사, 상호대차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99	1972	- 원문복사 61개관 참여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72	1999	- 72개 기관 중 대학도서관 48개관 참여 - 국외학술지 온라인 원문복사 및 분담목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155	1996	- 종합목록, 대학학술정보공유사업 - 학위논문서비스 50개 대학, 저작권 관리 - 학술지 소재 정보 서비스, 상호대차
포항공대 자료공동활용협의회	148	1990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한국지역대학연합도서관협의회	8	1995	- 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호남대 - 원문복사, 상호대차, 외국학술지종합목록 발간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102	1999	- 102개 기관 중 대학 66개관 참여 - 해외학술지 Web DB 공동활용
UNION DB 참여도서관간 자료공동활용협의회기관	50	1998	- 대학도서관 13개관 참여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53	1984	- 광주과기원, 포항공대, 한국과기원 -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52	1984	- 원문복사서비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153	1968	- 대학 45개관 참여 - 원문 복사서비스 제공
서울동북부지역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7	1994	- 광운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한성대 - 분담수서, 상호대차, 원문복사, 외국학술지 목차 교환
서울 5개대 해외학술지 공동이용 및 구독 협의회	5	1998	-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 분담수서
서울 신촌지역 4개 대학도서관 협의회	4	1998	-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 분담수서, 외국학술지 목차 교환 - AMS의 MathSciNet DB 컨소시엄 구독(홍익대 제외)
경기지역 6개 대학 외국학술잡지 공동구독 협의회	6	1998	- 경기대, 경희대(수원), 명지대(용인), 수원대, 아주대, 한양대(안산) - 분담수서, 외국학술지 목차교환
대구·경북 대학도서관연합회	5	1997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효성카톨릭대, 영남대 - 분담수서, 상호대차, 원문복사, 외국학술지 목차 교환
부경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5	1997	-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인제대 - 공동수서, 원문복사서비스, 목차 검색 시스템 운영
학술정보자료공동활용에 관한 협약	3	1999	- 위덕대, 경일대, 경주대 - 공동수서,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 목차검색시스템
학술교류협정서	2	1999	- 밀양대, 경상대 - 원문복사서비스
학술정보자료공동이용협약서	4	1998	- 신라대/광주과기원, 인제대/광주과기원 - 원문복사서비스
협정서	2	1998	- 계명대, 육군제3사관학교 - DB공유

5. 결론 및 제언

대학도서관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정보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전문화·세분화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정보제공은 주제전문화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학술정보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주제전문화의 역할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의미는 첫째,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전자도서관 혹은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부상되고 있는 주제전문화의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제공의 신속성, 망라성, 편의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교육 및 연구개발업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기능상의 조정과 구조상의 변화를 위한 모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전문화를 위한 방향과 형태 및 고려 요소를 개별 대학도서관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과 각종 학술정보 동향분석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대학학술정보에 대한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분석 및 행태분석으로 대학도서관내의 여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대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주제전문 사서의 자질 개발과 확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수 있을 것이다.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 확립과 양성 및 재교육 방안은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 현장과 학계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대학도서관간의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용성(usability)을 극대화시키면서 대학간 학술정보의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예산 사용 및 중복투자의 최소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간의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며, 각종 정보자료의 개별적 구독에 따른 예산의 절감효과와 아울러 출판 및 배포 속도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유통비용 등 국가적인 재원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미혜. 1998.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문헌연구. 『덕성여자대학 사회과학연구』, 5: 1-22.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통계연보.

신은자, 이해영. 2001.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2): 273-294.

- 오선경. 2002. 『대학도서관의 주제 게이트웨이를 위한 분류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소정. 2001.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동열. 2000.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역할. 『제2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도서관장세미나』. 제주.
- 정동열. 1997. 전자정보 관리시스템 분석 및 적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4(2): 85-104.
- 정재영. 2000. 주제관형대 대학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참고봉사방안. 『도서관』, 55(1): 80-11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해외학술DB 이용통계』.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Campbell, D. 2000. "Definition for Web-based Services." [cited 2002. 7. 15]. <<http://www.nla.gov.au/initiative>>.
- The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s Lists. 2000. Office of Scientific and Academic Publishing,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cited 2002. 7. 5]. <<http://www.arl.org/scomm/edir/>>.
- Fadiran, D. O. 1982.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14: 41-46.
- Gibb, B. L. 1993. "Subject specialization in the scientific library." *Special Libraries* 84(1): 1-8.
- Hay, F. J. 1990. "The subject specialist in the academic library: a review articl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6(1): 11-17.
- Johnson, E. R. 1977. "Subject divisional organizatio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39-1974." *Library Quarterly*, 47(1): 23-47.
- Martin, J. V. 1996.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a second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8(3): 159-169.
- Womboh, B. S. H. 1999. "Education and training for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in Africa."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75-91.